

KIA 양현종, 스포츠서울 '올해의 선수'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7 프로야구 스포츠서울 올해의 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KIA 양현종(앞줄 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승엽, 장재근, 홍익대 감독, 이복근 두산 스카우트 팀장, 김인식 KBO 총재, SK 정경배 코치, KIA 양현종, KIA 김기태 감독, 한화 김태균, 롯데 조정훈, 롯데 손승락, SK 최정, 넥센 이정후, LG 차우찬, KIA 김선빈, NC 김준완.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MVP를 석권한 양현종(KIA)이 2017 프로야구 스포츠서울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양현종은 11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인주로 임피리얼팰리스 호텔 7층 두배홀에서 열린 2017 프로야구 스포츠서울 올해의 상 시상식에서 대상인 '올해의 선수'를 수상했다. 양현종은 상금 500만원과 함께 크리스탈 트로피, 크루즈 상품권을 받았다. 올해 31경기에 선발 등판해 193 1/3이닝을 던지며 20승6패 평균자책점 3.44로 최고의 시즌을 보낸 양현종은 22년 만에 선발 20승을 거둔

국내 투수로 이름을 남겼다. 다승 1위로 KIA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두산과의 한국시리즈 2차전에선 완봉승, 5차전에선 우승을 확정 짓는 세이브까지 기록해 통합 MVP의 영예도 누렸다. 롯데의 후반기 기적 같은 진격을 이끈 손승락은 '올해의 투수'를 수상했다. 올 시즌 61경기에 등판해 1승3패, 37세이브, 평균자책점 2.18을 기록했다. 2년 연속 40홈런 고지를 밟으며 홈런왕 2연패를 달성한 SK의 최정은 '올해의 타자'로 뽑혔다. 사령탑 부임 3년 만에 KIA를 정상으로 이끈 김기태 감독과 역대 최고 고졸 신인타자로 맹활약한 넥센

손승락 '올해의 투수' 최정 '올해의 타자' 수상 김기태 감독 '올해의 감독' 이정후 '올해의 신인'

이정후는 각각 '올해의 감독', '올해의 신인'이 됐다. KIA 김선빈과 한화 김태균은 '올해의 성취'와 '올해의 기록'을 각각 수상했다. 김선빈은 1994년 이종범(해태) 이후 23년 만의 유격수 타격왕에 올랐다. 김태균은 88연속 경기 출루로 미국 메이저리그의 테드 윌리엄스(84연속 경기), 일본프로야구의 스즈키 이치로(70연속 경기)를 제쳤다. 롯데 조정훈은 3번의 팔꿈치 수술과 재활을 거쳐 7년 여 만에 1군 그라운드를 다시 밟아 4승2패, 8홀드, 방어율 3.91을 기록하며 '올해의 재기'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포스트시즌에서 그립 같은 슈퍼캐처를 선보인 NC 김준완은 최고 수비를 보여준 선수에게 돌아가는 '매직 글러브'를 수상했다. SK의 홈런포를 달아오르게 만든 정경배 코치는 '올해의 코치'를, 잇따른 선행으로 그라운드 밖에서도 모범적인 선수로 인정받고 있는 LG 차우찬은 '올해의 선행' 수상자로 선정됐다. 두산 화수분 야구의 비방을 만든 두산 이복근 스카우트가 올해의 프런트 영광을 안았다.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그라운드를 떠나는 '국민타자' 이승엽에게는 '특별상'이 선사됐다. 대학 야구계에 새로운 왕조를 구

2017 프로야구 스포츠서울 올해의 상 수상자

- ▲올해의 선수-양현종(KIA)
- ▲올해의 투수-손승락(롯데)
- ▲올해의 타자-최정(SK)
- ▲올해의 감독-김기태(KIA)
- ▲올해의 신인-이정후(넥센)
- ▲올해의 성취-김선빈(KIA)
- ▲올해의 재기-조정훈(롯데)
- ▲올해의 기록-김태균(한화)
- ▲올해의 선행-차우찬(LG)
- ▲매직글러브-김준완(NC)
- ▲올해의 코치-정경배(SK)
- ▲올해의 프런트-이복근(두산)
- ▲올해의 특별상-이승엽(삼성)
- ▲올해의 공로상-김인식(총재특보)
- ▲올해의 아마추어-장재근(홍익대 감독)



헥터·최형우, 알짜 활약 인증 웰컴저축은행 톱랭킹 'MVP'

KBS N 스포츠와 웰컴저축은행이 공동 개발한 '웰컴저축은행 톱랭킹'이 올해의 MVP로 투수부문 KIA 타이거즈 헥터 노에스(30), 타자부문 KIA 타이거즈 최형우(34)를 선정했다. 웰컴저축은행 톱랭킹은 타자, 투수의 기본 성적에 점수를 부여하고 경기 중 상황 중요도가 2 이상인 결정적인 활약에는 1.5배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승리기여도(WPA: Wins Probability Added)와 상황중요도(LI: Leverage Index)를 통해 선수들의 객관적인 실력을 측정하는 신개념 평가시스템이다. 헥터와 최형우는 2017 KBO리그 정규 시즌 맹활약으로 웰컴저축은행

톱랭킹에서 투수 1위를 지켰다. 상금은 각 500만원이다. 헥터는 2위 양현종보다 99.8점이 더 높은 누적 1504.1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올 시즌 30경기에 나와 20승 5패 평균자책점 3.48을 달성했다. 다승 공동 1위, 평균자책점 6위, 탈삼진 7위 등 투수 전 부문에 걸쳐 상위권에서 이름을 올렸다. 최형우는 총 1432.5점을 얻었다. 올 시즌 142경기에 출전해 타율 0.342 28홈런 176안타 98득점 120타점을 기록했다. 타율 6위, 홈런 12위, 타점 2위, 최다 안타 7위, 득점 9위 등 전체적으로 고른 활약을 펼쳐 KIA의 통합 우승에 걸인했다.

뉴스



'투산행' 린드블럼 "롯데, 정직하지도 전문적이지도 못해"

노골적 불만 드러내

'린드블럼'이라 불리며 롯데 팬들에게 사랑받은 조시 린드블럼(30)이 친정팀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뒤 두산 유니폼을 입었다. 두산은 11일 린드블럼과 총액 145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7년 동안 함께 하며 한국시리즈 2연패를 이끈 더스틴 니퍼트와 결별하며 내린 결정이다. 롯데가 린드블럼과 재계약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두산으로의 이적은 과격적인 행보가 아닐수 없다. 2015시즌을 앞두고 롯데에 입단하며 KBO리그에 뛰어든 린드블럼은 3시즌 동안 통산 74경기에 등판, 28승 27패 평균자책점 4.25를 기록했다. 지난 시즌이 끝나고 팔의 건강 문제로 미국으로 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렸다가 7월 롯데로 복귀했다. 뒤늦게 팀에 합류한 린드블럼은 12경기에 나서 5승 3패 평균 자책점 3.72의 성적을 남기며 팀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도왔다.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결별 소식을 먼저 전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며 말을 이은 린드블럼은 "구단에 FA 조항을 요구한 것은 팔의 건강 문제나 돈 문제와고는 무관하다"고 일갈했다. 린드블럼은 "롯데 구단이 오랜 기간 정직하지 못하고 전문적이지 못한 태도로 대응했다. 구단의 처사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폭로했다. "롯데가 정정으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언론에 팔의 건강상태를 물어본 적이 없었다. 왜곡된 언론 플레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외국인 선수가 이진 구단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드문 일이다. 더욱이 다른 리그로의 이적이 아닌 KBO리그에 남으면서 비난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롯데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잘지 선수 자녀의 건강 문제로 언론 플레이를 벌인 몰상식한 구단이 때때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을 자제하기로 했다. 간판 선수인 강민호와 황재균이 팀을 떠나는 과정에서 롯데 프런트와 관계가 틀어졌다. 소문이 돌기도 한 상황이라 린드블럼의 이적 과정을 바라보는 팬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롯데는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했고, 린드블럼은 두산과 계약하며 KBO리그에서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더 이상의 진실공방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롯데와 린드블럼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형성된 것만큼은 분명하다.

특히 NC 다이노스와 준플레이오프 2경기에서 1승 평균자책점 1.93으로 두드러진 활약을 펼쳐 내년 시즌에도 롯데 유니폼을 입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일찌감치 외국인 선수 트리오는 재계약 방침을 정한 롯데는 투수 브룩스 레일리과 내야수 앤디 번즈를 불렀는데 성공했다. 린드블럼을 보류 선수에서 제외하면서도 협상을 계속 하며 구애를 폈다. 그러나 롯데와 린드블럼의 동행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두산과 계약 소식이 전해지기에 앞서 린드블럼은 SNS를 통해 돌연 롯데에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다. 린드블럼은 "부산 팬들의 사랑은 과분한 영광이었다. 떠나게 된 것을

윤덕여 감독 "北 체력 속도 축구에 또 당해"

북한의 벽을 넘지 못한 윤덕여 감독이 패배를 곱씹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 대표팀은 11일 일본 지바 소가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북한과의 대회 2차전에서 0-1로 패했다. 12년 만의 대회 우승을 노린 윤덕여호는 지난 8일 1차전 일본전 2-3 패배 후 2연패에 빠지면서 사실상 우승에서 멀어졌다.

윤덕여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어려운 거라 예상은 했다. 북한의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축구, 또 속도에 당했다. 우리가 세컨드 볼에 대한 점유율이 적었다"고 패배를 분석했다.

경기 총평

"상대가 전방서부터 압박이 강했다. 이런 건 일시적인 게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린 선수들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좀 빨라야 한다고 본다. 또 보는 시야가 먼저 확보되고 생각을 한 뒤 결정을 하는 단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어려서부터 이런 부분이 훈련을 통해 부족한 것을 보완하면 해결할 것으로 본다. 3차전 중국전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3차전 좋은 모습 보여드려겠다."

내년 4월 여자 아시안컵을 대비하는 무대인데. 풀어야 할 숙제는

"오늘 나왔던 문제 중 가장 컸던 문제는 세컨드 볼을 준비하는 과정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내년 아시안컵을 대비해 분명 준비를 해야 한다. 또 일본과 1차전에서 나왔던 문제 중 우리가 불을 빼앗은 뒤 다시 너무 빨리 잃어버리는 약점을 보였다. 좀 더 강한 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력적인 문제는 분명 북한 선수들이 가장 좋은 체력을 갖고 있다. 훈련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훈련을 통해 체력적인 부분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뉴스



게이트볼 전남도 대표선수 1차전 선발전 개최

시·군 선수 14개팀 출전 광양시 전천후 구장서
최종 4차전 8명 전국대회 및 세계대회출전자격

전남게이트볼협회(회장 장귀남)는 지난 12일 광양 게이트볼 전천후 구장에서 전남도 게이트볼 대표선수 1차전 선발전을 치렀다. 이날 참가선수 14개팀 100여명은 예전 리그전을 통해 승자승을 거쳐 10개팀을 선정 오는 26일 장흥군에서 2차전을 치를 예정이다.

2차전에서는 16명을 선발 3차전을 거쳐 가장 기량이 뛰어난 최종 8명을 선정하여 2018년 2월부터 전남도 게이트볼 주간으로 기술, 전략 등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개최식에서 장귀남 전남게이트볼협회 회장은 "건강을 위

해 시작한 운동에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전국 대회는 물론 내년에 있을 브라질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참가할 대표선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차 예선에는 광양시·고흥군·해남군·여수시·영광B·화순군·순천A·영광A·담양군·순천B 팀 등 10개 팀이 선발 되어 2차전에 참가하게 된다.

광양=김홍권 기자

착한 신본기, 이견 없는 '사랑의 골든글러브상'

프로무대 데뷔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선행

KBO(총재 구본능)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동수)가 공동 시상하는 '2017 사랑의 골든글러브상' 수상자로 롯데 자이언츠의 신본기가 선정됐다. 1999년 제정된 사랑의 골든글러브상은 봉사 및 기부 활동 등 선행에 앞장서는 KBO 리그 선수 또는 구단에 수여된다. 신본기는 프로무대에 데뷔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 2012년 롯데에 입단하며 받은 계약금의 10%(인 1200만원)을 모금 동아회에 기부했다. 2013년에는 KBO 올스타전에서 받은 번트왕 상금 200만원 전액을 모금 관천초등학교에 기부했다. 같은해 동아대에 500만원

을 발전기금으로 쾌척했다. 2013년부터는 팬클럽 회원들과 함께 아동 보육시설인 미리아꿈터에서 월 1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적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들여 어린이들과 식사를 하고 영화를 관람하는 등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사실이 최근에서야 밝혀지기도 했다. 또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부인과 이달 신혼여행을 가기 직전까지 사직장 앞에서 아이들과 지친거를 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KBO는 1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2017 타이거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신본기에게 사랑의골든글러브상을 시상한다.

